

죄를 해결해주는 자가 진짜 구세주

사람이 늙고 병들고 죽는 원인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고 이제그대로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자연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원인이 있어야 그 원인에 의한 결과가 있는 것이지 원인이 없이는 그 결과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죽는 것은 죽는 원인이 있기 때문에 죽는 것이 죽는 원인이 없이 한 번 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 죽게끔 된 팔자가 돼서 죽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죽는 원인이 있기 때문에 죽는 것이고 만약에 죽지 않는 원인이 있다면 사람이 죽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이 늙는 원인이 있기 때문에 늙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나이 먹어서 늙는다고 한다면 나이 먹는 것이 늙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나이 먹어서 늙는다는 말은 이진 틀린 말인 것입니다. 또한 오늘날 병에 걸리는 것도 병 걸릴 수 있는 원인이 있기 때문에 병에 걸리는데 오늘날 병원에서 병을 100% 고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병을 100% 고치지 못하는 그 원인이 뭐냐면 바로 발병 원인을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날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사람이 늙는 것도 피가 썩어서 늙는 것이고, 병 걸리는 것도 피가 썩어서 병이 걸리는 것이고, 사람이 죽는 것도 피가 썩어서 죽는다는 것을 시간시간이 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가 썩는 여러 가지 이유

그러므로 여러분들 병원에 가면 진찰할 때에 피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이제그대로 핏속에 결핵균이 있으면 결핵 환자라고 진단을 내고, 핏속에 콜레라균이 있으면 이제 콜레라 병이 걸렸다고 진단을 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균에 의하여 그 병을 진단하고 있는데 오늘날 콜레라균이라든지 결핵균

이 핏속에서 왜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을 오늘날 의학박사들이 연구를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썩은 피가 있는고로 그 병균이 서식할 수가 있고, 그 병균이 핏속에서 발생돼 가지고 이제그대로 번식을 하고고로 그러고로 병이 걸리고 있는 것을 오늘날 외부에서 병균이 들어와서 이제 그 병이 걸리는 걸로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병균이 바로 사람의 핏속에서 발생되는 것이라는 것을 이 사람이 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핏속에서 그 병균이 발생돼 가지고 그대로 핏속에서 번식을 해서 그 병을 일으키는고로 오늘날 이제그대로 피가 썩지만 않다면, 썩은 피만 없다면 병균이 들어온다손 치더라도 직사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병이 걸리는 그 원인이 바로 썩은 피 때문이라는 사실을 오늘날 의학 박사들이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그대로 오늘날 피가 썩는 것은 나이를 먹어서 피가 썩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인간의 마음 때문에 피가 썩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이 이제 욕심을 부린다든지 사람을 미워한다든지 놀란다든지 불안한 마음을 갖는다든지 이제그대로 공포심을 갖는다든지 한다면 피가 썩는 것입니다.

나를 항상 버려야 하는 이유

이제그대로 그와 같은 마음은 나라는 의식이 그런 마음을 발생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성경이나 불경 속에 나를 항상 버려야 하는 말씀이 쓰여 있는 것 입니다. 나를 항상 버려야 하는 말은 무슨 말 이냐면 이제 그대로 마귀의 영이 되는, 죄의 영이 되는, 선악과의 영이 되는 나라는 의식을 버리면 욕심도 나오려야 나올 수 없고, 미워하는 마음이 나오려야 나올 수 없고, 불안한 마음이 나오려야 나올 수 없고, 놀래려야 놀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놀래 가지고 심장마비가 와서 직사하는



구세주 조희성님

사람이 많은 것입니다.

자동차가 저쪽에서 막 달려오다가 브레이크를 잡아서 이제그대로 그 사람을 치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이 죽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놀래는 순간 피가 100% 썩어서 심장이 멎는고로 죽는 것입니다. 심장이 멎는 것을 가지고 심장 마비라고 하는데 바로 피가 확 썩음으로 말미암아 심장마비로 죽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피가 썩지 않기로 하면 바로 사람이 죽으려야 죽을 수가 없는고로 피가 썩지 않기로 한다면 바로 영생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안 죽을 수가 있느냐?” 이런 말을 하는 사람에게 이 사람이 “그러나 사람마다 죽기를 다 싫어하지 않습니까?” 하면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하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죽어도 좋으면 밥은 왜 먹었어? 그래요, 안 그래요? 그 말이 바로 모순된 말인 것입니다. 죽어도 좋다면 밥은 왜 먹었고, 죽어도 좋다면 왜 걸어 다녀? 빨리 땅속으로 기어들어가지? 그래요, 안 그래

요? 그러므로 이제그대로 밥을 먹는 자체가 죽기 싫어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밥을 먹는 것이요, 이제그대로 이 세상에 걸어 다니면서 활동하는 것도 죽기 싫어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걸어 다니고 생활하는 것입니다.

나라는 의식이 죽음의 원인

사실은 오늘날 이 사람이, 사람이 원래 하나님이였다, 하나님이였을 때는 바로 죽으려야 죽을 수 없는 몸이었었고 영원영원 전서부터 영원무궁토록 사는 그런 영생체의 몸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그대로 마귀의 영이 되는 사자귀신이 되는 선악과의 영이 하나님의 영을 점령하여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아 나라는 의식이 마귀가 됐고, 하나님이 마귀 속에 갇힌 것이요, 하나님이 마귀 속에 갇힌 것을 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나라고 하는 주체의식이 바로 마귀요, 나라는 주체의식이 바로 사망의 영이고로 그러므로 나라는 주

체의식이 생각만 하면 사람이 죽는고로 성경과 불경에는 뭐라고 쓰여 있냐면 “너희는 하나님 안에서 행하라.” 그러니까 현재 마귀 안에서 행하고 있다 이 소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의식이 마귀라는 것입니다. 나라는 의식이 마귀이고로 마귀 안에서 행하고 있는고로 하나님 안에서 행하라는 말은 바로 마귀 안에서 행치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 안에서 행하는 것은 바로 내 안에서 행하는 것이 되므로 내 안에서 행하면 피가 썩고 나라는 의식 안에서 행하면 바로 이제그대로 사람이 늙어서 병 걸려서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그대로 성경이나 불경에서는 “나를 항상 버려라!”고 그랬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그래서 오늘날 성경으로 거듭나야 구원 얻는다는 말이 성경이나 불경 속에 쓰여 있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거듭나야 구원 얻는다는 말은 바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구원 얻는다는 말이요, 전에 사람이 하나님이였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에 사람이 하나님이였었는데 지금은 마귀의 포로 하나님이므로 “다시 하나님이 되어라.”는 말인 것입니다.

나라는 의식이 하나님이 되지만 하면 하나님 안에서 행하다가 되고, 나라는 의식이 하나님이 되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먹었다가 되는 것입니다. 불신을 품었다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으로 거듭나야 구원 얻는다는 말이 바로 불신을 품으라는 말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말과 같은 말인 것입니다. 이걸 모르면 구세주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나라는 의식이 마귀인 사람은 바로 죄인이면서 마귀새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 오늘날 나라는 의식이 마귀이고로 마귀는 바로 마귀소리를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이 제 잘났다고 여러 가지 말을 하고 있지만 개는 개소리하고, 소는 소 소리하고 이제그대로 원숭이는 원숭이 소리하고, 사람은 사람 소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다면 바로 하나님이 말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면 바로 하나님이 말하는 것이고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경청해서 그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되어서 병 걸려서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이 사람이 가짜 구세주와 진짜 구세주에 대하여 설명을 시간시간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예수라는 사람을 구세주로 믿고, 예수가 인류의 죄를 대속키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피를 흘렸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해서 피를 흘렸다면 인류의 죄가 저희들 말 마따나 다 속죄가 돼서 하나도 없어졌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를 믿지 않아서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죄가 없어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가 없어졌다면 사람이 죽을 수가 있을까요? 죄 때문에 죽는다고 성경이나 불경 속에 쓰여 있는고로 죽지 않아야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죽지 않는다면 예수가 진짜 구세주라고 믿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죽는 걸 보아 구세주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 때문에 사람이 죽는고로 죄를 해결하지 못하는 구세주는 구세주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1992년 7월 7일 주님 말씀 중에서 정리 원현옥 기자

[연재] 아브라함 족장시대에서 삼손의 사사시대까지



참성경

(9) 에서가 삼촌(큰아버지) 이스마엘의 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다

(9) 에서가 삼촌(큰아버지) 이스마엘의 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다

(지난호에 이어서)

에서는 카바 신전으로 들어가 “아브라함 하나님이며, 아브라함의 피가 흐르는 동족 여인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도록 저를 도우소서. 그리하여 나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소서.”하고 소리 내어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예배를 인도하던 느밧을은 사촌동생 에서의 소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집에 계신 아버지 이스마엘에게 에서의 방문목적을 알렸습니다.

한편에서는 카바 신전 안에 놓여있는 두 뿔 정도 크기의 검은 돌에 대해서 궁금했습니다. 그는 붉은 몸에 검은 털이 가득한 자신처럼 붉은 기가 도는 매갈매같은 타원형의 검은 돌에 유난히 눈길이 갔던 것입니다. 느밧을이 카바(Kaba)신전 안에 안치된 검은 돌의 유래를 에서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이스마엘 92세 때에 바란 광야에 큰 가뭄이 들어 많은 우물 가운데 겨우 서너 개만 마르지 않았어. 그때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가 낳은 욕산의 가족은 동북쪽으로 올라가고 또 그두라가 낳은 미디안의 가족만이 그들 영역에 있는 마르지 않는 서너 개의 우물에 의지하며 그곳에 남

아 안주했었지. 하지만 이스마엘과 그가 낳은 아들들은 대홍년을 피해 남쪽으로 내려왔었네. 메카에 이르러 수원을 찾기 위해서 이스마엘이 남북으로 마주보고 있는 싸파(As-Safa) 동산과 마르와(al-Marwa) 동산을 일곱 번이나 오갔는데, 일곱 번째로 바로 이 두 봉우리 사이의



▲ 사우디의 영국국자와 면담을 마친 후 (右2 구세주, 1987)

계곡으로 지날 때에 그의 발아래에서 샘물이 터져 나왔던 거야. 바로 이 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하갈이 낳은 아들 이스마엘을 위해서 준비해놓은 우물이 라고 하여 ‘잠잠 우물(Zamzam Well)’이라네. 그 당시 그는 발꿈치 아래의 땅에서 솟아오르는 샘물을 보고도, 당장 자신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물을 마시지 않았던 거야. 먼저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준비해주시 샘물에 대해서 감사의 기도를 올렸던 거야. 그러자 흰옷을 입고 얼굴에서 빛이 나는 아름다운 청년이 홀연히 나타나더니 그 샘 속에서 검은 돌을 꺼 집어내어 이스마엘에게 건네주면서 ‘이 검은 돌(al-Hajar al-Aswad: 알-하자르 알-아스와드)’은 원래 눈보다 더 희고 깨끗 1 이사야 41장에 예언된 대로 동방 땅 끝 땅 모퉁이 한반도에서 출현한 이 긴자 조희성님께서 26일간의 제3차 세계순방 때(1987. 4. 17~5.12)에 사우

디아라비아도 방문했습니다. 그 당시 사우디 정부 측의 올림픽 조직위원장 등 많은 사람들로 부터 최고의 귀빈 대우를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열매로 양념을 한 양을 통째로 삶고는 손으로 양의 살점을 뜯어내 손님에게 권하는 최고의 접대를 받았습니다. 그 자리에 참석한 사우디 장관이 말했습니다. “우리의 조상 이스마엘이 샘에서 얻은 검은 돌을 이슬람 성지의 카바신전에 모시고 있는데, 그 검은 돌이 올해 들어 희어지고 있습니다. 예언대로라면 아마도 구세주께서 올해 아니면 내년쯤 이 사우디에 왕립하실 것으로 믿어집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그들 사우디 사람들은 구세주를 눈앞에 모셔놓고도 몰랐던 것입니다. 구세주께서는 구세주가 여기 왔는데도 모르고 있다고 하시면서 속으로 웃음을 지으시고 그러나 만일 내가 구세주라고 말을 한다면 그들은 이 사람을 돌로 쳐서 죽였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세주의 제3차 세계 순방 당시 사우디아라비아를 1987년 4월 17일에 순방을 하셨으며 비행기를 타고 가는 시간부터 검은 돌이 더욱 더 희게 되신다고 말씀하신 바가 있

곳한 영체이며 빛의 존재로서 아담과 하와의 일부에 속했다. 그런데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마귀한테 점령당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변할 때에, 기쁨의 동산을 그리워하는 눈물과 죄인으로서 당하는 고통의 눈물이 서로 응결되어 마침내 이 검은 돌이 탄생하였지. 앞으로 이 세상에 마귀를 이기는 구세주가 나오셔서 죄인을 희고 깨끗한 의인으로 정화시킬 즈음에, 이 검은 돌이 희게 변하게 되리라. 그러나 이 돌(하자르)을 신전에 잘 간수하였다가 희어지는 표징을 보게 될 때 분명히 지상의 어느 한 곳에 출현하신 구세주께서 이스마엘 후손의 땅을 밟고 지나가셨음을 알고 하나님의 신을 모신 구세주를 찾아 만백성이 더불어 구원을 얻도록 하라. 라고 말했다. 거야. 이 같은 계시를 전해준 흰옷 입은 청년이 바로 가브리엘 천사야!”

능수능란하게 사냥을 잘하는 에서

124세의 이스마엘은 오랜만에 상봉한 조카 에서를 위해서 산해진미로 가득한 저녁상을 차려, 그와 그의 종들을 대접하였습니다. 에서는 식사하기 전에 큰아버지 이스마엘에게 자신이 신부를 구하려고 여기까지 왔다는 목적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습니다(1993년 12월 16일 설교 말씀).

이스마엘은 대답하기를, “오늘은 밤이 너무 깊었고 먼 길을 오느라 고단할 것이니 잘 잠수시고 편히 쉬시게. 내일 해가 뜨면 아침식사를 하고 나와 나의 아들과 손자들이 보는 앞에서 사냥감을 명중시키기를 활습씨와 에서의 용맹성을 보여주도록 하게. 그러면 내가 나의 딸 마할랏을 조카 에서에게 내어준다 해도 나의 가족들이 기뻐하며 그대를 축복할 것이니, 부디 조카가 소원하는 바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가호가 있으시길 빌겠네.”라고 하였습니다.*

이튿날 아침이 되자 에서의 가족들을 입고 활과 창을 무장하고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문밖으로 나섰습니다. 다섯 명의 이스마엘의 손자들도 에서와 같이 무장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들은 제각각 낙타

2 성경 창세기 28장 6~9절을 보면, 쌍둥이 형제 에서와 야곱이 77세 되는 해에, 야곱이 밧단아람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딸을 아내로 취하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그 일로 자국을 받은 형 에서가 이스마엘의 딸 마할랏을 아내로 취하기 위해 아라비아 메카로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야곱보다 훨씬 앞서서 에서 50세에 마할랏을 아내로 취하였던 것입니다. 만약에 성경대로 에서 77세에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면 그때까지 마할랏이 63세의 노처녀로 지냈다가 되는데, 이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카바신전 동쪽 모퉁이 1.5m 높이에 검은 돌이 하나 박혀 있다 출처: https://youtu.be/gms1uV1HLR4

에 올라타고 활과 창을 들고 사냥감을 쫓아갔습니다. 해가 중천에 오를 때까지 누가 많이 사냥하느냐는 경기였습니다. 모두 낙타를 타고 손살같이 숲속으로 달려갔습니다. 약속된 정오까지 에서가 혼자서 다섯 마리의 사슴을 사냥하는 동안 다섯 명의 이스마엘의 손자들은 두 마리의 사슴만 사냥하는 데 그쳤습니다.

그날 사냥한 일곱 마리의 사슴을 요리하여 만찬을 열었습니다. 창밖의 하늘에 희미한 초승달이 떠 있는 가운데, 이스마엘은 그의 대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에서의 용맹성과 의리를 치하하고 그의 딸 마할랏이 에서의 신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신 살의 에서의 이스마엘 구심 세에 낳은 서른네 살의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는 삼촌 이스마엘에게 낙타 열두 마리를 드리고 마할랏과 그녀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는 예물을 건넸습니다. 에서의 일주일간의 신부 마할랏과 함께 지내고 이튿날 메카를 떠나 가나안 땅의 브엘세바로 귀향길에 올랐습니다.*

안젤라